뽑아 읽는 ≪맹자≫ 강독 / 제7강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이해: 성선설(性善說)

○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鄕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仁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孟子.公孫丑上≫)

【해석】
여기 누군가가 우물로 기어들어가는 어린아이를 보았다면, 누구라도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다. 그것은 그 어린아이의 부모에게 대가를 바라서도 아니고, 고을 사람들 친구들에게서 훌륭하다는 말을 들으려 해서도 아니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원성을 듣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살펴 보건데,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지심(辭讓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하겠다. 측은지심은 인(仁)의 실마리이고, 수오지심은 의(義)의 실마리이며, 사양지심은 예(禮)의 실마리이고, 시비지심은 (智)의 실마리이다.(≪맹자·공손추상≫)

○ 告子曰:「性猶杞柳也, 義猶桮棬也, 以人性爲仁義, 猶以杞柳爲桮棬.」孟子曰:「子能順杞柳之性而以爲桮棬乎? 將戕賊杞柳而後以爲桮棬也? 如將戕賊杞柳而以爲桮棬, 則亦將戕賊人以爲仁義與? 率天下之人而禍仁義者, 必子之言夫! 」(≪孟子.告子上≫)

【해석】
고자(告子)가 말했다. "본성은 비유하자면 버드나무이고, 의(義)는 버드나무로 만든 그릇과 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인(仁)과 의(義)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버드나무를 그릇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맹자(孟子)가 말했다. "그대는 버드나무의 본성에 맞추어 그릇을 만들겠습니까, 버드나무를 해친 뒤에 그릇을 만들겠습니까? 만일 버드나무를 해치고서 그릇을 만든다면, 사람을 해치고서 인과 의를 실천한다는 것입니까? 온 천하 사람들이 인과 의를 재앙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은 필시 그대의 논리일 것입니다."(≪맹자·고자상≫)

○ 告子曰:「性猶湍水也, 決諸東方則東流, 決諸西方則西流. 人性之無分於善不善也, 猶水之無分於東西也.」孟子曰:「水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

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 今夫水, 搏而躍之, 可使過顙, 激而行之, 可使在山. 是豈水之性哉? 其勢則然也. 人之可使爲不善, 其性亦猶是也.」(≪孟子.告子上≫)

【해석】
고자(告子)가 말했다. "본성이란 동쪽으로 물길을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물길을 트면 서쪽으로 흐르는 여울물과 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선(善)과 불선(不善)에 대해 나뉨이 없는 것은 마치 물이 동과 서에 대해 나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맹자(孟子)가 말했다. "물은 참으로 동과 서에 대해서는 나뉨이 없으나 위와 아래에 대해서도 나뉨이 없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나아가는 것과 같으며, 사람이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컨대, 물을 손으로 쳐서 튀어 오르게 한다면 이마보다 더 높이 튀어 오르게 할 수도 있고, 격렬하게 흐르도록 한다면 산 위에까지 흐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습니까? 그 형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누군가에 선하지 않은 짓을 하도록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본성은 역시 이와 같은 것입니다."(≪맹자·고자상≫)

○ 公都子曰:「告子曰: 性無善無不善也. 或曰: 性可以爲善, 可以爲不善. 是故文武興, 則民好善, 幽厲興, 則民好暴. 或曰: 有性善, 有性不善. 是故以堯爲君而有象, 以瞽瞍爲父而有舜, 以紂爲兄之子, 且以爲君, 而有微子啓 王子比干. 今曰 性善 , 然則彼皆非與?」孟子曰:「乃若其情, 則可以爲善矣, 乃所謂善也. 若夫爲不善, 非才之罪也. 惻隱之心, 人皆有之, 羞惡之心, 人皆有之, 恭敬之心, 人皆有之, 是非之心, 人皆有之. 惻隱之心, 仁也, 羞惡之心, 義也, 恭敬之心, 禮也, 是非之心, 智也. 仁義禮智, 非由外鑠我也, 我固有之也, 弗思耳矣.」(≪孟子.告子上≫)

【해석】
공도자(公都子)가 말했다. "고자(告子)는 '본성이란 선함도 없고 불선함도 없다'고 했고, 어떤 이는 '본성이란 선해질 수도 있고, 불선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왕(文王)이나 무왕(武王) 같은 분이 임금이 되시면 백성들은 선을 좋아하게 되고, 유왕(幽王)이나 여왕(厲王) 같은 사람이 임금이 되면 백성들은 사나움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본성이 선한 경우도 있고 본성이 불선한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堯)임금을 임금으로 삼고도 상(象) 같은 사람이 있었고, 고수(瞽瞍)를 아버지로 삼고도 순(舜)임금 같은 분이 있었으며, 주(紂)임금을 조카이자 임금으로 삼고도 미자계(微子啓)와 왕자 비간(比干) 같은 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본성은 선하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저들은 모두 그릇된 것입니까?"
맹자(孟子)가 말했다. "그 실정[情]대로만 하면 선을 하게 되므로 '선하다'고 하는 것이다. 불선을 하게 되는 것은 재질의 죄가 아니다. 측은지심(惻隱之心)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고,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으며, 공경지심(恭敬之心)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고,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다. 측은지심은 인(仁)이고, 수오지심은 의(義)이며, 공경지심은 예(禮)이고, 시비지심은 지(智)이다. 인의예지란 외부로부터 나를 녹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맹자·고자상≫)

人倫, 由仁義行, 非行仁義也.」(≪孟子.離婁下≫)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이란 거의 희소한데,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버리고, 군자는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다. 순(舜)임금께서는 모든 사물에 밝으셨고 인륜(人倫)에 훤하셨으나, 인(仁)과 의(義)로 말미암아 행하신 것이지 인과 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다." (≪맹자·이루하≫)

○ 曹交問曰:「人皆可以爲堯舜, 有諸?」孟子曰:「然.」「交聞文王十尺, 湯九尺, 今交九尺四寸以長, 食粟而已, 何如則可?」曰:「奚有於是? 亦爲之而已矣. 有人於此, 力不能勝一匹雛, 則爲無力人矣, 今曰擧百鈞, 則爲有力人矣. 然則擧烏獲之任, 是亦爲烏獲而已矣. 夫人豈以不勝爲患哉? 弗爲耳.」(孟子 「告子下」)

【해석】
조교(曹交)가 물었다. "사람은 누구나 요(堯)·순(舜)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조교: "제가 듣기로, 문왕(文王)은 신장이 10척이고, 탕(湯)임금은 신장이 9척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의 신장은 9척4촌임에도 곡식만 축내고 있을 뿐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맹자: "어찌 그런 것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처럼 할 따름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의 힘이 병아리 한 마리도 이길 수 없다면 힘없는 사람이라 할 것이고, 3천근을 든다면 힘있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획(烏獲)만큼 무거운 짐을 든다면 그 역시 오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감당할 수 없음을 근심하겠습니까? 하지 않을 뿐입니다."(≪맹자·고자하≫)

○ 孟子曰:「富歲, 子弟多賴, 凶歲, 子弟多暴, 非天之降才爾殊也, 其所以陷溺其心者然也. 今夫**麰麥**, 播種而耰之, 其地同, 樹之時又同, 浡然而生, 至於日至之時, 皆熟矣. 雖有不同, 則地有肥磽, 雨露之養人事之不齊也. 故凡同類者, 擧相似也, 何獨至於人而疑之? 聖人與我同類者. 故龍子曰: 不知足而爲屨, 我知其不爲**簣也**. 屨之相似, 天下之足同也. ..... 故曰: 口之於味也, 有同耆焉, 耳之於聲也, 有同聽焉, 目之於色也, 有同美焉. 至於心, 獨無所同然乎? 心之所同然者何也? 謂理也, 義也. 聖人先得我心之所同然耳. 故理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孟子.告子上≫)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풍년이 든 해에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믿음직스럽고, 흉년이 든 해에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사나워진다. 이는 하늘이 내려주신 재질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함닉(陷溺)시킨 결과이다. 보리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를 들어보자. 보리를 심은 지역이 같고 시기도 같다면 흙을 뚫고 불끈 솟아나 하지(夏至) 쯤에는 모두 익을 것이다. 같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토지의 비옥 정도나 비와 이슬 등의 기후조건 또는 사람의 보살핌이 같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무릇 종류가 같은 것은 대개 서로 비슷하나니, 어찌 사람에 대해서만 의심하겠는가?

성인과 나는 같은 종류이다. 그러므로 용자(龍子는 '그 사람의 발을 모르고 신발을 만들었더라도 그것이 삼태기가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고 말했다. 신발이 서로 비슷한 것은 천하 사람들이 발이 같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입은 맛에 대해 공통적으로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귀는 소리에 대해 공통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며, 눈은 빛깔에 대해 공통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 마음만이 유독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없겠는가? 마음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치[理]나 의로움[義]가 그런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인이란 우리들 마음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먼저 얻으신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치[理]나 의로움[義]이 우리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우리들 입을 기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맹자·고자상≫)

○ 孟子曰:「牛山之木嘗美矣, 以其郊於大國也, 斧斤伐之, 可以爲美乎? 是其日夜之所息, 雨露之所潤, 非無萌蘖之生焉, 牛羊又從而牧之, 是以若彼濯濯也. 人見其濯濯也, 以爲未嘗有材焉, 此豈山之性也哉? 雖存乎人者, 豈無仁義之心哉? 其所以放其良心者, 亦猶斧斤之於木也, 旦旦而伐之, 可以爲美乎? 其日夜之所息, 平旦之氣, 其好惡與人相近也者幾希, 則其旦晝之所爲, 有梏亡之矣. 梏之反覆, 則其夜氣不足以存, 夜氣不足以存, 則其違禽獸不遠矣. 人見其禽獸也, 而以

爲未嘗有才焉者, 是豈人之情也哉? 故苟得其養, 無物不長, 苟失其養, 無物不消. 孔子曰: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 」(孟子 「告子上」)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우산(牛山)에 있던 나무가 일찍이 아름다웠을 것이나, 큰 나라의 교외에 위치한 까닭에 도끼와 자귀로 베어가니 아름다울 수 있었겠느냐? 낮과 밤의 생식과 비와 이슬의 적셔줌으로 인해 움이 돋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와 양들을 그곳에서 길러 뜯어먹게 하다보니 저렇게 민둥민둥해져 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그 민둥민둥한 것만 보고서 (우산에는) 원래 재목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찌 산의 본성이겠느냐?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어찌 인의(仁義)의 마음이 없었겠느냐? 그 양심(良心:본연의 마음)을 놓아버린 것은 마치 나무를 도끼와 자귀로 날마다 베어낸 것과 같으니 아름다울 도리가 있겠는가? 낮과 밤의 생식은 이른 새벽의 기상이요, 그 좋아하고 싫어함이 사람과 가까운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은 낮 동안에 하는 짓이 옥죄고 망가뜨림이 있어서이다. 옥죔을 반복하면 밤 동안의 기상이 보존될 수 없고, 밤 동안의 기상이 보존될 수 없다면 금수와의 거리가 멀지 않으리라. 사람들은 그 금수와 같은 모습을 보고서 (사람만의) 재질이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찌 사람의 실정[情]이겠느냐? 따라서 만일 제대로 기르기만 하면 자라지 않을 것이 없고, 제대로 기르지 못하면 소멸하지 않을 것이 없다. 공자께서는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망실되며, 드나듦이 때가 없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은 오직 마음[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맹자·고자상≫)

○「敢問何謂浩然之氣?」曰:「難言也.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於天地之間.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 餒也. 是集義所生者, 非義襲而取之也. 行有不慊於心, 則餒矣.」(≪孟子.公孫丑上≫)

【해석】
공손추(公孫丑): "감히 여쭙습니다. 호연지기(浩然之氣)란 무엇을 말합니까?"
맹자(孟子):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호연지기(浩然之氣)라는 기(氣)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며, '곧음[直]'으로 길러 해함이 없으면 하늘과 땅 사이를 메운다. 호연지기(浩然之氣)라는 기(氣)는 '의(義)'나 '도(道)' 등과 짝하며, 이것이 없으면 움츠러든다. 이것은 '의(義)'를 꾸준히 모았을 때 생성되는 것이며, '의(義)'가 들이닥쳐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구석이 있으면 움츠러들게 된다."(≪맹자·공손추상≫)

○ 孟子曰:「口之於味也, 目之於色也, 耳之於聲也, 鼻之於臭也, 四肢於安佚也, 性也, 有命焉, 君子不謂性也. 仁之於父子也, 義之於君臣也, 禮之於賓主也, 智之於賢者也, 聖人之於天道也, 命也, 有性焉, 君子不謂命也.」(孟子 「盡心下」)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입이 맛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눈이 아름다운 빛깔을 추구하는 것, 귀가 좋은 소리를 추구하는 것, 코가 향긋한 냄새를 추구하는 것, 팔다리가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이 본성과 관계가 있지만 명(命)이 있기 때문에 군자는 본성이라 부르지 않는다. 부자(父子) 관계에 인(仁)을 실천하는 것, 군신(君臣) 관계에 의(義)를 실천하는 것, 빈주(賓主) 관계에 예(禮)를 실천하는 것, 현자(賢者)에 의해 지(智)가 시행되는 것, 성인(聖人)이 천도(天道)를 구현하는 것이 명(命)이지만 본성이 있기 때문에 군자는 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맹자·진심상≫)

○ 孟子曰:「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殀壽不貳, 修身以俟之, 所以立命也.」(孟子 「盡心上」)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본성을 알 것이요, 그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 것이다. 그 마음을 보존하고 그 본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일찍 죽고 오래는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몸을 닦아 기다리는 것이 명(命)을 세우는 것이다."(≪맹자·진심상≫)